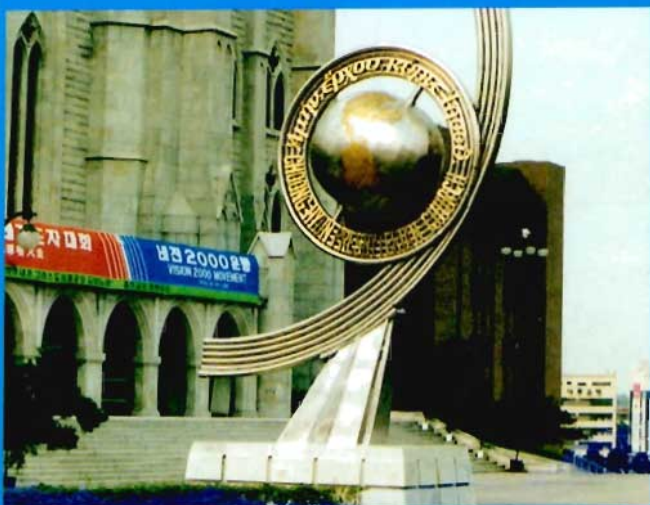


1991 9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비전2000기념비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시편 서론

시편의 명칭은 영어로는 Psalm인데, 칠십인역의 명칭 '프살모이'(Psalmoi)를 음역한 것이며 그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이다.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편은 각각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의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후대에 나누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전편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신앙공동체의 시, 개인적인 신앙고백의 시, 찬양의 시, 그리고 왕의 시 등이 그것이다. 저자별로 본다면, 다윗의 시가 73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그리고 에단과 모세의 시가 각각 한편 씩이다. 나머지 50편은 저자미상이다. 이같이 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이므로 시편을 말할 때 '다윗의 시'라고도 부른다. 시편의 내용에서 볼 때 유일신관이 왕권사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악인과 극단적인 의인의 대결의 장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또 시편은 사회적인 죄 뿐 아니라 영적이며 개인적인 죄를 깊이 다룬다. 악인의 번영이 있으나 영구치 못하므로 의인이 낙심할바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메시아를 대망케 하며 주의 나라의 궁극성을 바라보게 해준다.

9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
3.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체력과 영력
4. 목회자 세미나
5. 교회학교의 부흥
6. 전 다락방 배가
7. 제3목양관, 사랑의 집 속한 건축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26 : 3)

연합이란 완전히 조화되고 일치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상적 관계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26편에도 구절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혹시 자기에게 허물과 죄가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시험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의 진리 중에 시종 여일 행하였습니다. 이같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견고히 의로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표준과 신령한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허탄한 인생들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 은혜임으면서 감사 찬송의 삶을 살았습니다.

**** 주와 연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아름다운 역사를 성취한 것은 주와 연합한 목회자와 일꾼, 그리고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설립 38주년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더욱 주와 연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설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앞에 귀하게 상달되게 하옵소서.

2 (월)기이한 평안과 담대

찬송88 성경, 시27 : 1-14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27 : 14)

우리는 시편 27편에서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하리요!”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만한 자나 허풍장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와같이 담대한 이유가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는 말만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원수된 행악자가 그에게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진 사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군대로 위협을 당하거나 전쟁의 불안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인입니다. 어떤 조건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 * 위와 같은 신앙인의 인격적 특징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저것을 염려하지도 않고, 다신론자처럼 이 신 혹은 저 신에게 눈치보지 않습니다. 그의 한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함으로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 밖에 모르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공포와 불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를 주시되 오직 주님만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이종윤 위임목사님을 늘 강건함과 능력으로 붙드소서.

「여호와이는 저희의 힘이시요」(28 : 8)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의 특징은 먼저 진실치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러한 모습을 일컫기를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속마음이 다르고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만 듣고는 속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거짓과 위선적인 면이 있지 아니한지 살펴서 고쳐야 합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은 불신사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불신’으로서 그 사상과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교양이 많고 높은 인격과 도덕적 삶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심령은 어둠 속에 있는 악한 인생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모셔야 인격과 삶이 진실해지고 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 성경에서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서 곤고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받는 자요,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 자가 진정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기도 거짓과 불신을 버리고 진실히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하소서.

4 (수)주께 영광돌릴 이유

찬송40 성경, 시29 : 1-11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29 : 1)

이 세상에 왕, 대통령, 대장 등 권세높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꿇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 최고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는 자연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는 많은 물과 큰 바람을 거느리시며 폭풍우를 이끄시고, 화염을 가르는 뇌성벽력으로 백향목을 꺾으시고, 들짐승으로 놀라게 하시며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실로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찬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모든 자연만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권세 · 권능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며 영광돌려야 한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권능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재앙과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는 재앙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두려운 날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권능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시요 왕이 되십니다. 환난과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시며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라.

기도 환난 날에,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임금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30 : 5)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에게서 고난받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며 영육의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죽을뻔 하는 위기를 만나며 그중에 더러는 가장 무력한 자 중에 한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눈빛은 소망으로 빛있지 않으며 저들의 마음은 낙심치 않고 오래 참으며 인내합니다. 저들은 오직 위를 향해서만 부르짖고 위를 통해서만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소망의 백성이라 불리웁니다. 우리가 세상가운데서 소망의 백성으로 불러 세움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소망의 백성은 낙심치 않습니다. 또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견고하고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 * 증권과 부동산에 소망두던 사람들이 크게 낭패하여 낙담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견고하고 좋은 소망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심과 그의 은총은 성도의 소망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력한 소망의 기초입니다. 이 소망 중에 우리는 울음이 깃든 저녁이 지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소망의 기초와 내용이 되시는 주님 모시고 소망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 개강하는 제2학기 경로대학을 통해서 믿음의 큰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31 : 1)

어려움을 당하거나 강한 원수를 만나 자기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숨을 곳을 찾아 도피하는 자의 모습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31편 본문의 도피자는 복된 도피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 도피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피처는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그는 도피처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있기에 그 의로 전져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있기에 그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품을 도피처로 삼고 피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품으로 피하는 자는 복된 도피자입니다.

******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 품을 최선의 도피처로 삼습니다. 왜 더 곱고 튼튼한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바로 안다면 어찌 그를 나의 도피처로 삼고 환난날에 그에게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잘 아십니다. 그는 결코 나를 대적의 수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안전한 곳에 든든히 세우십니다.

기도 우리의 견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복된 도피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개강하는 제2학기 아담반 시간을 통해 귀한 믿음의 진보와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31 : 14)

극심한 고통과 위협 중에 있는 한 신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많은 근심과 슬픔으로 영육이 쇠할 정도이고 괴로움과 욕을 당하는 모양이 못 사람의 놀라우며, 거들떠 보지도 않기를 마치 이미 죽은 자나 깨진 그릇 보듯하며, 비방과 두려움 속에 싸였고 생명의 큰 위협 속에 처해 있는 시편 저자는 너무도 곤고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서 저자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도 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는 세상의 그 무엇도 꺾을수 없는 불굴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전천후 신앙’ 또는 ‘오뚜기 신앙’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거나 물러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둘도 없는 큰 목표에 도전하면서 그같이 쉽게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태산같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신앙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어서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 자체로 인하여 큰 결실을 맺고 충족한 보답을 받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신앙의 충족한 보상을 누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그의 크신 인자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기도 불굴의 신앙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기쁨부으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주시고 앙무리를 바로 돌보게 하소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 할지라」(32 : 6)
 교도소에서 두 사형수가 사형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
 습니다.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죄가
 가장 두렵습니다.”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 하십니
 까?” “천국가는 준비로 맞이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
 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
 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만큼 큼니
 다. 죄의 회개가 없는 한 불안과 초조와 번민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
 하면 영혼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본문은 죄를
 회개치 않을 때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나 회개
 할 때 즐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
 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볼 때 너무나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
 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앞에 엎드려 모든 죄를 회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워버리시고
 씻어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기도 주여 나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오늘 회집하는 공동
 의회를 통해 주의 뜻 안에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33 : 9)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이며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생활과 기도생활을 힘차게 계속하면 범사에 승리하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헨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시는 것을 즐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1절). 그래서 힘을 다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그 분에게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에 찬송합시다. 찬송은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격동도, 울분도, 마귀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유행가나 흥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끊임 없이 나와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 오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함도 더 하소서.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33 : 20)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서 남을 보살피고 도와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몇십년동안 이름없이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의 의나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듣기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이해 타산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서로의 계산이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 남을 돌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살피고 도와주십니다. 전쟁에서, 영혼의 사망에서 전지시고, 기근 시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분이 늘 감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현대사회는 가난하고 약하며 고통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기구를 조직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돕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돕습니다. 수해가 나면 의연금을 기탁하는 사랑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돕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와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오늘도 나의 모든것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제직들이 맡은 사명 위에 열심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34 : 10)

현대 세계가 당면하는 고통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국가마다 자원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인구의 반수 이상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궁핍을 겪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족함을 경험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도 살지만 여기서 만나를 내려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케 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으며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풍족히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 *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풍족한 세계를 창조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세상만 바라보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채워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노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풍족히 주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될 서리집사 후보자 교육을 통해 선한 청지기들로 훈련되고 무장하게 하소서.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시 34 : 17)

혀는 사람의 신체중에 유일한 단일 감각 기관이며 중요한 발음기관입니다. 이런 혀에 대해 성경은 막강한 힘을 지닌 세력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잠 18:21)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8)고 했습니다. 다윗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꾀사한 말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13). 하나님은 이런 혀를 미워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15). 의인이 외칠 때에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17).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은 그 입을 금하여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을 금하지 못하고 비방과 수근수근함과 거짓과 욕설과 음란을 그 입에서 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입조심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입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주세”라고 기도하신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19)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잠 12:18)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호하시느니라”(잠 21:23)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을 금하여 악을 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덕을 발합시다.

기도 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써 지져주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신령한 새 노래로 영광돌리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와 즐거워함이여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35 : 9)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속에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태도입니다. 더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큰 믿음일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다 분노와 다툼과 혈기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불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와 머리를 보호하는 「손 방패」를 잡으시고(2) 창을 빼시는(3) 여호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며 또 승리한 후에도 자기 영혼이 여호와로 인해 구원되었음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그분의 대적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 * 다윗은 건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장애요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늘 부흥이 있게 하소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34 : 13)

증언은 어떤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여서 한 사람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자들이 오히려 거짓 증거를 하여 선을 악으로 갇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11). 그 일로 인해 다윗의 영혼은 외롭고 또 심히 상했습니다(12). 서로가 미워하며 싸웠던 사람이라도 상처가 남기 마련인데 하물며 선을 베풀어 주었던 자들이 그렇게 해올때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13). 그들을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습니다(14).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죄의 대가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숭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갇았습니다. 결국 그 선이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 * 악을 선으로 갇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신거야”라든지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받는거야 잘되었지”하고 좋아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몹쓸 짓을 했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갇으십니다. 악을 선으로 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36 : 7)

어느 과학자가 인간의 육체를 분석한 결과 타올 한 장 빨 수 있는 물, 커피를 달게 할만한 당분, 철분 흑연 등을 계산하여 1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지혜와 의지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1달러짜리의 한낱 고기덩어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지혜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자궁하여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큰 착각이며 무지의 소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죄악(130:3)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인간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십니다(시57:10).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인될 수 없으며 특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은 더욱 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엡3:18-19)라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악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맞본 성도들은 인도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아무렇게나 되어진다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집 공사가 속히 완공을 보게 하시고 복지마울도 속히 건립하게 하소서.

16 (월) 여호와께 말기라

찬송342 성경, 시37 : 1-11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말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37 : 6)

혹자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없다' 즉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땀 흘리고 성실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돈벌기 위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1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속히 베임을 보며,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악한자들에 대하여—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것입니다(8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히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장에는 불공평하고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까지 큰 위로와 축복이 준비 되어져 있습니다(11절).

※※ 쉽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성도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된 자입니다(히12:2).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생활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 땀 흘리는 수고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노동의 신성함을 알게하소서. 주간성경공부와 교사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을 통해 부족함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항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37 : 12)

꽁꽁 언 얼음 위에 뜨거운 불에 달군 쇠덩이를 올려 놓으면 뜨거운 쇠덩이는 열을 빼앗기고 곧 식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굴복시켜 나의 유익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못한 것(16절)입니다. 꾀박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해하기를 즐겨할 뿐더러 의인의 몰락을 그들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12절). 의인은 악인에게서 쫓기는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물질이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약한 힘과 소유가 오히려 그에게 행복한 생활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그 사소한 소유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어려움을 당할 때 - 주를 위하여 -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때에 주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빌2:5이하).

18 (수)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찬송434 성경, 시37 : 22-29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37 : 24)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주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는데도 어떤 때는 고통이 따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혹 자신의 잘못으로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주의 자녀들을 더욱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기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분께서 하물며 더 좋은 것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종8:32).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23절). 그렇기에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결식치 않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될 것입니다(25, 29절).

**** 비록 순간적으로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읊을 단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금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그 분을 오히려 찬양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27절).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주의 은혜로 잘 훈련된 성도가 되어 복음전파에 앞장서게 하소서. 매달 세례받는 성도들이 성례에 합당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 다」(37 : 39)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모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진리를 찾아가는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나,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외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본문은 악인의 세력이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을지라도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므로 그는 평안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천국시민들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또는 정직한 사람(37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율례와 계명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평안하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최후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36절). 일시적으로 번영하였을지라도 결국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38절). 이 멸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형벌입니다.

**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인과 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현세가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임을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38 : 4)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젖먹이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죄는 크든 작든 죄이며, 그 죄의 효력 역시 동일하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지극히 적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빚어진 고뇌와 번민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면서 그러한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은연중에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죄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며 늘 죄책감에 휩싸여 살게 합니다(4절).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에게는 삶의 안식이 없으며 늘 피곤할 뿐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요14:27).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평안한 쉼에의 초청을 거듭하고 제십니다(마11:28).

**** 현재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폭풍을 등지고 피신하기 보다는 폭풍의 눈 방향으로 돌진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듯이 우리에게 고통이 몰아닥칠 때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고통의 근원자이시며 평안의 위로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기도 오늘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을 통해 독일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38 : 21)

콘스탄틴 대왕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버리든가 기독교를 버리든가 양자택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많은 관리들은 기꺼이 공직을 버렸으나 일부 비겁자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공직에 남았습니다. 신앙을 위해 용감히 공직을 떠나는 기독교인들에 감복한 황제는 “그리스도에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나에게도 충성하지 못할 것이다”하여 비겁자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용감한 기독교인들을 다시 등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좇고자 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대하여 핑계와 변명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 *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또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계획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하여 주심을(요16:33) 믿으십니까?

기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39 : 6)

체코의 소설가 카프카는 '변신'이란 작품 속에서 흉칙한 카멜리온으로 변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결국 그 남자는 벌레로서의 생애동안 다시금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애쓰지만 온갖 시련과 고통만 당하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는 불안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인간의 연약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레만도 못해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사람을 입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개와 같이 잠시 후면 사라질 인생들이 얼마나 헛되게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는지 보게 됩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든지, 짧은 인생 쾌락이나 즐기면서 살자고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7절).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그 분만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자기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8절). 이와같이 세상과 자신을 향해서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없는 여행을 떠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유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행에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우소서. 파라과이의 김재창 협력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소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40 : 1)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전도하는 중에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했습니다(행17:22). 이것을 실증이라도 해주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 또한 종교성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산에만 가면 구석 구석에서 종교 행위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매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합2:19, 고전12:2).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과 비교가 안되는 다른 분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1절). 또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며(2절) 우리가 말을 미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사65:24).

*** 우리의 선택은 이미 들을 귀 있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참여한 자라 할찌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마7:7).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제맛을 내고 구슬도 제대로 펴 때에 그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나태한 생활을 한다면 승리 속에서 실패자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심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팔라우의 김익경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24 (화)예물보다 나은 순종

찬송377 성경, 시40 : 6-10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40 : 8)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할 때에는 성의가 들어 있어야지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는 사람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민나」인데 이 말의 뜻은 '고맙습니다'입니다. 고마움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지만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막12:43).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고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하나님은 중심 없이 드리는 예물과 말로만 하는 봉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전리품 중 일부를 남기고 하는 말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꾸짖었습니다(삼상15:22).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적 계산의 발로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보다는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산 예물을 원하십니다.

기도 행함과 함께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 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
러 볼 수도 없으며」(40 : 12)

더욱 더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열을 가하
며 더욱 더 단단한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센 열을
가해야 합니다. 온상에서 예쁘고 쉽게 자라난 나무도
아름답지만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자라난 나무는 더
값지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는 기독교
인도 아름답지만 세상의 모진 풍파에서 견디어 나가는
기독교인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풍파는 아브라함에게도,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성군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무수한
재앙이 자기를 둘러 싸고 억누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폭풍우 같은 시험이 몰려
와도 믿음의 용사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
다.

* * 해금강에 천년송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천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크기에 있어서는 몇 년 안된 소나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우뚝 솟은 바위
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친 비바람에 시달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는 정상적 조건에서
성장한 다른 어느 소나무 보다 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무를 보는 많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시련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고 이기면 바위 틈 속의
소나무 같이 더욱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41 : 1)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일들을 즐겨워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자기의 요구를 채워 주는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약할 때, 재앙의 날에, 쇠약한 병상에 있을 때에 더 즐겨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겐 미움을, 사울 왕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아들에게는 반역의 괴로움을, 육신적으로는 병마에 시달리는 등 여러 면에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불평하기 이전에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경을 이겨 나가는 길을 기도함으로 찾아 나갔습니다.

※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배고프고 춥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바울이 가지고 있는 3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시험을 당할 즈음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괴로우나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무슨 일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서사모아의 박행렬, 장부용 의료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42 : 2)

임산부가 태아를 교육시키는 방법 중 한 가지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보고 생각하는 것은 태아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성도는 항상 바라 보는 초점이 정확해야 합니다. 초점은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고라 자손은 본문에 기록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뿔이 잘린 사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기에 물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와같이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수한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 보게 하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주변의 반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자주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 일수록 더욱 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물 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호조 건이라 할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으며 결국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궁극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존 밀턴은 44세에 실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낙원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너머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도 세상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파키스탄의 의료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계획과 진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28 (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찬송434 성경, 시43 : 1-5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43 : 4)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이 돈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되기도 하며 정체가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관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도 각기 인생관, 가치관, 신관을 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착각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목적지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은 화를 자처하는 것이요 가면 갈수록 요나와 같이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방향도 제시하면서 오직 좋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 어느 무더운 여름 날 집으로 향하는 노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유달리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 다. 비슷한 노선의 버스는 많이 지나가는데 집으로 향하는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 다. 그렇다고 다른 버스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노선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극락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오늘도 육신을 위해 겉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가게 하옵소서. 일본의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님과 유병세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본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44 : 26)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상응하는 징계로써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당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며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신들의 착한 행실과는 대조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고라 자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욕을 당하며 조소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이방 중에 말거리가 되었으며 수치와 비방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를 따르는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며 고난당할 때 손잡아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무시고 응답이 없는가라고 반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기도 고난 속에서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홍콩의 김은태 선교사님이 홍콩총현교회회를 든든히 목양하게 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45 : 4)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면이 모두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에는 온유와 용서라는 부드러움도 있으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와 채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악과 선이 함께 하며 진리와 불의가 섞여 사는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의가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묵인하시고 간과하시기도 하지만 주께서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용서 보다는 진리와 공의가 앞서게 될 것입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을 그 때에 만민은 모두 왕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의 나라의 영원성을 위한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그 때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때는 지나버린 뒤가 됩니다.

* *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렸던 악인들은 세상 끝날에 세상에서 받아 누린 만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얼굴을 보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진리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